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저장경찰대학교	기숙사비	76만원5천원/한 학기
파견지역	저장성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할납부(<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5년 2월~2016년 1월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성별		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6. 1. 14

파견자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본래 일주일에 주 4회 정규 중국어수업 18시간과 중국어로 진행되는 교양수업(무용, 서예, 경극 등 과 같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규 수업이외의 교양수업은 학생의 역량에 맞게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

1학기 때는 유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였지만 2학기 때는 유학생 수가 증가하여 3개반(기초, 중급, HSK5급)으로 나누어 수업하였다. 중국어 선생님은 총 세분이며 모두 여자분이고 수업은 말하기, 듣기, 읽기(중합)수업을 일주일에 4번으로 나누어 수업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읽기(중합)수업이었다. 가장 유익했던 것은 세과목의 진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단원의 문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듣기수업을 통해 실제 대화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에 맞게 반을 나누어 수업하고, 그만큼 반마다 유학생 수가 나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여 좀 더 집중 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절강성 항저우시 빈장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강경찰대학교이외의 4~5개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 절강대학교를 기준으로 뒤쪽에는 라지지에가 존재하며 그 곳에는 다양한 중국 길거리 음식과 옷가게 등이 즐비해 있고 병원이 있다. 라지지에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다른 대학의 기숙사가 있어 우체국, 은행 등 편리한 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우메이, 화룬이라는 대형 마트가 학교와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맥도날드 혹은 KFC, 피자헛 등도 마트 일층에 입점해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하다보니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학교 앞, 우메이 마트 옆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이용하여 시후, 신광따디오 등 항저우 시내를 편히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역은 버스를 이용하여 30분 정도 혹은 택시를 타고 20여분 정도를 가야 있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지하철 시설이 잘 정리되어 있어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항정우똥짚이라는 기차역을 이용하여 상하이등 중국의 다양한 다른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절강대학교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다.

기후는 대한민국보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 무척 덥다. 겨울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시작되며 3월 중순까지는 매우 춥다. 비가 매우 자주 오는 편이며 가끔 미세먼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도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체감 온도는 같은 것 같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6,000	내부구조	2인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에서는 사용 후 깔끔한 정리를 해야 한다. 한국 유학생들이 사는 진관로우리는 기숙사에는 학교 선생님 및 교육을 받는 공안들과 같이 생활 하는 곳이므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시끄럽지 않게 유의해야 하며, 10시 이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주위사항	학교를 드나들 때마다 신상정보와 나간 시간, 돌아온 시간 기입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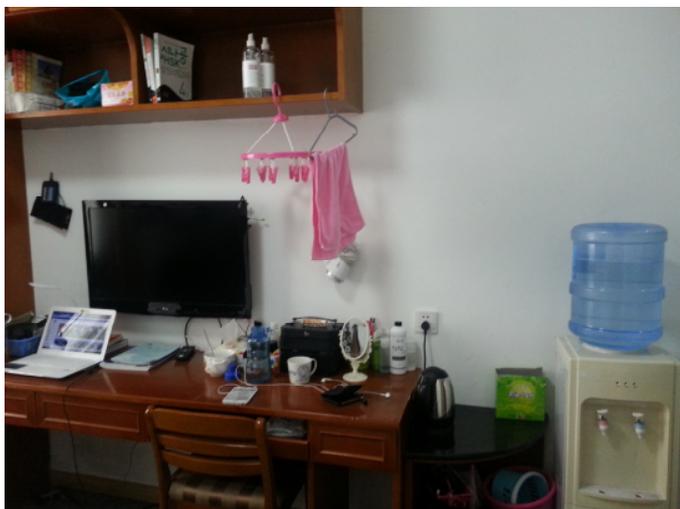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1인 1침대이며 기숙사 안에는 냉난방을 위한 에어컨이 잘 갖춰져 있다.

수납시설은 붙박이, 옷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옷의 수납이 충분히 가능한 크기이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방의 쓰레기는 매일 아침 아주머니들이 청소해주신다. 그러나 내부까지 청소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필요해 인해서 아주머니께 부탁하면 청소기를 돌려주신다.



책상가운데는 텔레비전이 있고 2명이서 같이 써야 한다. 텔레비전프로그램 중에는 한국 드라마나 해외 영화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지루할 때 가끔씩 보는 것도 추천한다. 책상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닦아주신다.

책상 옆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처음 기숙사에 입사하고 나서 바로 앞 사무실에 가서 정수기와 물통을 옮겨야 한다. 물은 1통 당 7원(약 1300원 정도)로 매우 싼 편이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장롱은 여닫이와 미닫이 두 가지 형식이 있으며 한국학생과 같이 사용할 경우 상의 하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며 된다. 장롱 안에는 옷걸이와 바지걸이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유학생들이 쓰는 기숙사 맨 끝 방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기구와 냉장고가 있다. 이곳에서 요리를 하고 친구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물론 이곳도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해주지만 하지만 쓰레기통만 비워주시는 정도이다. 그래서 음식을 하고 나면 꼭 반드시 치워야 한다.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는 매일 아주머니들이 청소해주시며, 쓰레기통도 매일 비워주신다. 또한 휴지가 없을 경우 아주머니들이 직접 채워주시며, 기숙사 복도 맨 끝에 있는 카트에 항상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샤워실 또한 한 달에 한번 씩 전체적으로 소독과 청소를 해주시며 샤워기 옆에는 샴푸와 바디워시가 항상 구비 되어 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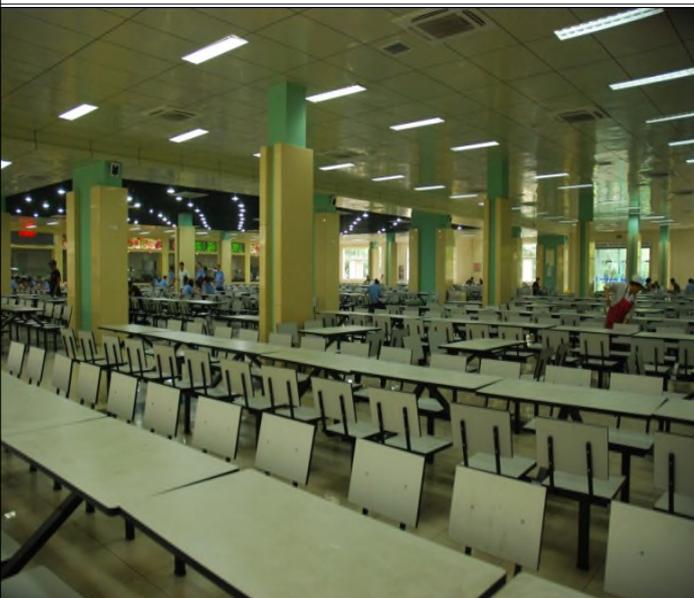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도서관 1,2층은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는 곳이며 3층부터는 열람실이다. 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층을 사용할 수 있으며 1,2층은 1인용 개인책상이 있고 3층부터는 4인용책상이다. 도서관은 9시50분까지이며 유학생인 우리도 책을 빌릴 수 있다.



강의실은 총 8개 건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 학생들이 수업하는 건물을 같이 사용한다. 수업은 각자 다른 건물에서 하며 책상도 건물 마다 다르고 강의실 안에는 앞뒤로 에어컨(히터)이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가운데 건물이 도서관이며 양 옆 건물들은 모두 강의실이다.



식당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카드에 본인이 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형식이며. 충전하는 곳은 식당 문 바로 옆에 있다. 메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음식 뿐만 아니라 카레 같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며 식당 바로 옆에는 매점과 빵집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 입에 맞지 않는 학생은 이곳들을 이용해도 된다. 모두 식당카드로 계산 가능하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나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생 때 배운 간단한 인사정도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와 지루하지 않은 수업시간에 덕분에 금세 중국어 실력이 늘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벽 없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수업이 없는 자유 시간에는 같이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학교에 가장 좋았던 점은 1학기 때는 중국인 룸메이트가 있어 그 친구와 함께 수업시간에 배운 어법이나 단어를 이용해 바로바로 대화에 활용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 중국인 룸메이트가 없었던 2학기 때는 한국반(외교과로 이 학생들 또한 순천향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게 될)학생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거나 과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중국어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연휴가 많기 때문에 연휴에는 비교적 먼 곳을, 휴일에는 가까운 곳을 여행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문화도 느낄 수 있었고, 각 지역마다 다른 방언 등 그동안 몰랐던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콩고, 리오스 등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함께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장경찰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전기세, 수도세 등을 유학생이 부담 하지 않고 학교자체에서 부담하며, 매달 700위안의 장학금이 나온다. 700위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책을 사는 등 중국어를 공부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서 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곳은 경찰대학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야외활동이 많지 않았다는 것과 기존에 있었던 중국인 학생과의 룸메이트 시스템도 이제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G20이라는 큰 행사가 있고 그 행사에 이 학생들이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전에 유학생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교자체에서 통보하는 방식은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대신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중국학생들과 교류의 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니 혹시 저장경찰대학교로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점을 참고하였으면 좋겠다.